

제43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일(화)

장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위원장 이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해군사관학교가 폐교하고 이진해 간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진해 출신 이종욱 위원입니다.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종욱 위원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위 마치시고 좀 몸이.....

○이종욱 위원 집에 갔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불편하셔서 제가 대참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기분이 좋아서 가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몸이 좀……

○이종욱 위원 조금 더 하실 걸로 예상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7월 16일 날 발표하셨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종욱 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변경 가능한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난 8월 26일 날 공청회를 했고 지금 의견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요,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국군사관학교 창설한다는 그 자체는 확정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앞으로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굳은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말 그대로 정부의 기본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변동할 수 있다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국방부차관 이두희 변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거기 보도 자료에……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봤자 뭐 별 거 없어요. 창설한다 뭐 그 정도 하고 교수진 비율이 어찌고저찌고 그 정도입니다.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열린 자세로 국민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설한다는 그 자체도 변경 가능한 걸로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크게는 못 움직인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본계획의 대전제는 유지하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방법론이나 하는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능성이 90%인지 50%인지 10%인지 1%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에 있는 창설한다는 그 자체는 0.5% 확률로 내지는 5% 확률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 말도 못 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대전제를 변경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공청회를 지금 합니까? 기본계획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무엇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요? 정해 놓고 어떻게 공청회를 합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그 전에 해야 되고 국민들 의견 수렴을 그 전에 해야지요. 다 정해 놓고 뭐 세부적인 거 그런 거 합니까? 교수 비율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국민들이 난리입니까, 그 공청회장에서?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현행 체제 유지가 대안이 되냐, 안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아니고 5%든 10%든 1%든 대안이 된다는 그 자체도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엇그제 8월 18일 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했어요,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 느낌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공청회 왜 하는지 모르겠고 공청회에 장관도 참석 안 하고 차관도 참석 안 하고……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지금 국민들 58%가 통합에 반대하고 사관생도들 91%가 반대하고 명분도 없고 쿠데타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외국 사례도 대부분의 나라가…… 아니, 국방부 업무보고 하면서 대통령 앞에서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허위 보고하면 됩니까? 대부분이 통합 사관학교라고요, 외국에서? 군인 20만 중에…… 실제로 2개밖에 없더라고요. 보이시지요? 인도하고 에티오피아 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다 각 군 사관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잡아간다면서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됩니까? 그 뒤에 이게 사실과 틀렸다고 보도, 해명자료 했어요?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질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현행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까? 죽었다 깨도 없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간다는 대전제가 변함이 없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또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간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1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예.

○이종욱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민들도 반대하고 당사자인 사관생도도 반대하고 지역 주민, 진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진해 앞바다 바닷물까지 다 퍼 가랍니다. 퍼 가세요.

그런데 왜 통합해야 됩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이제 3년 9개월 남았는데 모든 국민들의 반대를 불구하고 지난 80년간 지켜 온 역사, 장교 양성체계를 마음대로 바뀌도 됩니까? 그럴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이?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군위원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임기근 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조직과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는 것이 순서이지요.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강대식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이런 추진단이라는 별도의 신규 사업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서 뚝 떼 가지고 5800만 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가 심의하지 않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확인해 보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의 필요성도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도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금융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한국부동산원 등 여러 기관이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관의 조사·수사 역량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을 왜 국무총리실에서 또 하나의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옥상옥인 상설 감독기구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꼭?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이런 기관들은 조사·감독하는 게 허술했다 이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원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강대식 위원 충분하다고 판단을 안 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강대식 위원 그래서 국회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기존 경비 가지고, 뚝 떼어 가지고 국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 감독기구가 부동산 거래 관련해 가지고 금융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등기라든지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들여다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빅브라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대식 위원 당위성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적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무작정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그냥 기본경비에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런 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감독원하고 관련된 것은 법률안이 지금 정무위에 제출돼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제출돼서, 제출돼 있으면 그 법안이 통과되면 해야지요.

제도적으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부동산감독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정무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해 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국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동산감독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기존 조사·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향후 상설감독기구 추진 시에는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정보접근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국회에 사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예. 부동산시장을 바라는 마음은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혹시 행정절차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것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재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준 위원 피곤하시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최전방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재외공관들,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173개의 재외공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재외공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않은 것 같습니다. 근무 태만으로 인한 여러 지적도 있었고, 최근에 가장 국민적으로 분노를 산 대표적인 일이 작년 8월 불거졌었던 캄보디아 스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에 한국인이 납치·감금됐다는 신고가 2023년에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또 2025년에 50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공관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이 여권을 연장해 달라 이러면서 찾아왔었는데 당시 적색수배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도 오히려 총책한테 그걸 알려 주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4월에는 피해자가 범죄단지에서 겨우 탈출해서 열두 시간 만에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아직 근무시간 아니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입장을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당시 정말 심각했었던 것 같고 저도 청와대에서 관련된 일들을 자주 논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사관의 범죄예방이나 대응조치 많이 강화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강화가 돼서 캄보디아의 경우 지금 범죄 신고율이 94%가 줄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작년 그때부터 94%가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재외공관을 거의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바꾸겠다 이런 기치 아래 재외국민 보호 그다음에 우리 기업 활동 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창달 이것 세 가지를 가지고 재외공관을 재창조하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장에게 책임을 더 주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위원** 과거에 잘못된 사례들이 계속됐었던 건 어쩌면 성과지표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들어와서요 처음 재외공관 활동실적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될 텐데요. 공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개수 이런 것들도 공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상반기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고, 특히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건수는 72.8%가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거라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지 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었다는 게 충격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만큼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계속 잘 쌓아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정상외교를 통해서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협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이를 재외공관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략자산 연계하고 통합해서 국익 극대화해야 하고 이런 K-이니셔티브가 재외공관에서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만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려 봅니다.

재외동포청장님께도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해외 많이 다녀 보면 동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여러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아마 참정권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동포들께서 어떤 부분들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재외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이고 가장 큰 민원입니다. 투표권이 지금 현재 대선과 총선 그리고 국민투표권이 보장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표소가 공관 중심으로만 배치돼 있기 때문에 워낙 넓은 지역에서 투표소까지 오는 데 실제로 짧게는 하루 종일, 길게는 3일이 걸렸다는 사람들까지, 비행기 타거나 열차 타고 이렇게 어렵게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투표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동포사회의 가장 큰 민원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준 위원** 참정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시면 좋겠고 또 부실 관리라든지 아니면 부정개입 우려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알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갑의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마지막에 질문이 물리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우리 G7 회원국인가요,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박정하 위원** G7, 우리 회원국 아직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박정하 위원** 우리 초청국이지요? G20은 어떤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회원국입니다.

○**박정하 위원** 회원국이지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 있었던 걸로 제가 기록 보니까 있던데 맞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G20 정상회담, 정상회의까지 발전시키자라는 것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G7은 냉전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G20은……

○**박정하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미, 한중, 한일 등 양자 정상회담 외에 G20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외교에서?

○**외교부장관 조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상당히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쩌면 다자외교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 외에도 APEC 정상……

○**박정하 위원** APEC도 있고 많을 테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하여튼 중요한 회의 중의 하나예요. 이것을 받침하는 게 G20 재무장관 회의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정도로나 중요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출발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박정하 위원** 출발 당시, 지금도……

○**외교부장관 조현** 왜냐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박정하 위원** 그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008년에 저도 G20 정상회담 참여했었습니다.

다.

금년도 G20 재무장관회의 미국 애슈빌에서 오늘내일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낮 시간 정도였으면…… 글로벌 무역 불균형, 국가부채, 핵심 자원 공급망, 대이란 경제 제재 등을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구윤철 부총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외공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거나……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직 없으시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박정하 위원 문체부장관님하고 유산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얼른 여쭙게요.

작년 7월 지명받으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박정하 위원 그때 당시 유네스코 회의가 파리에서 있었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랬습니다.

○박정하 위원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세계유산 등재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얼마 전에 끝난 부산 유네스코 총회가 유치가 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회의 중간에 전임 유산청장이 방문해 파리회의 총회 중에 있었는데 유산청장님하고 문체부장관님 발표가 났지요. 맞지요? 기억하시지요? 저도 현장에 있어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래서 제가……

○박정하 위원 그랬다가 지금 말씀하신 유산청장님이 이것 적절치 않다, 국제사회 국제회의 가서 회의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것을 놔두고 있는데 지금 청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 이상하니까 총회 끝날 때까지 유임을 시키고 이후에 발령이 나는 걸로 하자라고 했지요. 바로잡았지요, 어찌 됐건?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어찌 됐든 간에……

○박정하 위원 청장님이 청하셨어요, 청와대가 그렇게 잡았어요? 청장님이 청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박정하 위원 청와대가 했어요? 어찌 됐건 청장님이 청하셨으면 청장님이 잘하신 거고 청와대가 그렇게 했으면 늦게나마 바로잡은 게 잘됐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발령을 내도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뒤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임용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어쨌든 청장님도 말씀 주시고 청와대도 바로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성과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재무장관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 많으신 행안부장관님, 이 인사 시기 적절했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

○박정하 위원 답변 안 하실래요?

보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

○박정하 위원 외교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박정하 위원 불가피하게……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리에 안 계시네.

마지막,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는 다 모른다고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를 대표해서 구윤철 재정장관 인사 시기가 적절했다, 아니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불가피했을 거다?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박정하 위원 개인적으로 불가피했을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인사에 대해서……

○박정하 위원 좀 전에 제가 유산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가 그때는 바로잡았는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중요한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 장관을 거의 무장해제시켜서 전쟁터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보낸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좌관님 답변은 불가피했을 거다? 개인적으로 말씀 주세요, 개인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개인적으로 제가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개인적인 판단도 안 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인사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대통령이 인사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내각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공직자지. 다 모른다 그러면 누가 일해요? 대통령 혼자 일하십니까? 제발 좀 국민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요,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하 위원님이 구윤철 부총리님 말씀을 하셨는데 구윤철 부총리 생각하면 저는 정말 좀 찡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사실 집값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부동산 세제 개편 왜 하나고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좌관님 나오셨지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 말씀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세제정책도 그중에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와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쌓아 가지고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국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에 관련된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인천 제물포·영종·검단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장관님이 당시에 인천시민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답변 주셨고, 경제부총리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당대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저기 빨간 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 지금 박찬대 시장이지요. 626억 원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장관님은 장관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인천시민 입장에서 정부는 거짓말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 주겠다고 공약했고 국회에서 법도 만들었고, 바뀐 정부의 인천시 시장이 예산 신청했는데 한 푼도 반영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한 거지요.

청사, 지방의회 건설해야 되고 정보화 사업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 통합 청주시 출범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청주시 경우 통합청사 건립요청액을 자율 통합 기반 조성 사업으로 대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사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할 때 인천시민들과 인천시의회 또 여러 지도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 법 개정 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분할에 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배준영 위원 분할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통합 및 분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통합도 있고요 신설도 있고.

○배준영 위원 분할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분할도 있고요.

○배준영 위원 법으로 만든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인천시가 감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영 위원 법을 보면 병렬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지금 신청했겠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퇴근하셔서 제가 못 여쭙겠는데, ‘민통선 평균 6km 정도 조정 가능하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통선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왜 후속 대책 얘기가 안 나오니까, 벌써 몇 달이 됐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7일 날은 정책 방향을 발표를 드렸고요. 이게 해제가 되려면, 접경지역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경계 시설이나 CCTV나 이런 시설들이, 민통초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백여 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구축을 하면서, 그다음 또 잘 아시겠지만 이걸 민통선이 이전되는, 변동이 되는 것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나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리고 미세하게는 작전지역 검토라든지 지면 단위 검토라든지 현장에서 보고 작전부대들과 지자체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 시설 구축과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내일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 정책으로 예산을 잘 담아 주셔서 내년부터 순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갑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얘기 나와서요, 국방부차관님 좀 여쭙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고 전 세계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김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군 육성 이것이 보수·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다들 누구나 노력해 왔던 것이고 특히나 민주당 정부 보수 정권보다 항상 국방비 예산의 증액에

있어서 항상 진심이었던 걸로 국민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군사관학교 통합 과정도 사실 강군을 이끌 정말 주요한, 주요 엘리트 장교들을 어떻게 잘 육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세종연구소에서 발행했던 국가전략 2022년에 나와 있던 한국군 합동성 문제의 고찰 논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갈등 회피, 협조, 통합, 합동 시너지, 교차영역 시너지라는 이 5개의 발달 단계 중에 협조에 그치고 있고 미군 같은 경우는 교차영역 시너지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물론 미군은 거의 항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실전을 통한 통합훈련이 되어 있는 점이 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군사관학교의 교육이 어떤 힘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합동성이라든지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관학교라는 제도가 육사·해사·공사가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져서 우리 군을 근대화, 현대화시키고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잘 지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적 변화와 작금의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미국이 군대를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해 가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성공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냉엄한 현실 또한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의 규모라든지, 한 학년의 학생이 백칠팔십 명에서 300명대 초반 되는 것으로 대학을 하나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게 지금 육사·공사·해사가 따로 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동성이나 첨단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하는 시대에 큰 틀에서 역사의 변화·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현실을 직시해서 또 우리 국민의 인식이 과거에는 각 군 사관학교가 전국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면 작금의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한 정말 치열한 고민과 논쟁 끝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 학생들을 함께 모아서 한 학년을 1000명 정도 규모로 키워야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육사·해사·공사가 각각 다른 교육들은 또 삼사 학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현장에 가서 자기 주특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군으로서, 해군으로서 또 공군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통상 미국의 사관학교 제도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 미국은 각 사관학교가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투자를 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톱 리그에 속하는 정도의 사관학교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제도와 또 보다 나은 안보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특히 학생들 그리고 현역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더 많은 부분 토론해 주시고 의견들을 좀 모아 가는 과정 꼭 좀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문체부장관님, 지금 스파이더맨 영화 나올 때 7월 8일에 아시는 것처럼 영화 산업 침체할 때 이재명 정부에서 540억 원 영화 할인권 사업 추진했는데 이것 날짜에 맞추느라고 심의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매 먼저 연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래서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런 일이 없도록……

○김성희 위원 영진위에서는 영화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가동하고 있어서 여기서 모니터링만 하면 충분히 예매를 막거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예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회차 변경까지 하면서 위원님들, 장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권오을 장관님 계시지요?

제가 독립유공자 자손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1호 법안이 보훈처를 보훈부로 바꾸는 법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보니까 최근에 한 지자체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주는데 마침 6·25 참전용사 수당 때문에 제가 보니까 가장 하위 레벨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이런 수당을 주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국민들은 병자호란·임진왜란 의병 후손들도 수당을 줘야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앞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하여튼 참전 유공자분이 곧 돌아가시는 연세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수당을 좀 높이라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반드시 보훈 가족에 대한 수당 그리고 중장기적인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 게 있으면 장관님께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답변을 제가 다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 당국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꼭 이뤄 주시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 때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직무대리님 나와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이인선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사무총장님도 안 계시고 직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그야말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리님만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유령 투표소가 46개가 있다. 또 아직 시간이 되지를 않았는데 투표율이 올라간 타임머신 투표다. 투표인 수가 그야말로 제로인 게 계속 반복되더라. 타 투표소하고 똑같은 수치가 복사처럼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열어 보지도 않고 영향이 없다 하면서 그야말로 기각·각하를 시켰다고요, 261건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을. 그렇지요? 소청을 어쨌든 기각·각하를 시켰습니다.

혹시나 직무대리님께서 올림피아공원의 올공 청년들 만나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저는 한 서너 번 가 봤는데요. 대학생 총학생회 관계자분들이 과천의 저희 중앙선관위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면담을 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한 표가 정말 제대로 보장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터트리고 계시고요. 국민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참 충격적인 일이다, 안일했던 부분을 반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이인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제가 봐서는, 교육부장관님도 계시고 국교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대통령 한마디에 재각재각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관위는 대통령의 말 이후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과부나 교육위 같은 데 고민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재각재각 잘 움직여 가고 있는데 선관위는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니까 했다는 그 대책이, 선관위의 내부 직원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나 하면 회대의 똥볼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그야말로 인정받고 싶다는 얘긴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와 계십니다마는 보좌관회의 하고 하실 때 정말 대법관 문제나 사법 파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선관위 문제는 굉장히 조용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용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회의할 때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그런데 대통령이 즉각적인 반응을 했는데도 아무런, 감감무소식이니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선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저희들이 국정조사특위를 8월 31일까지 80일 정도 수감을 했고요. 합수본 수사를 계속 받는 와중에도 이번에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투개표 관리 절차라든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현장 대응 체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동이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보고드리고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제 조사가 끝나고 특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나오고요. 부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투표율이 조작됐다면 득표율도 조작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간 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투표소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것과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요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니까 비교해서 잘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전우회나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처 관계자들이나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함께 노력하면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칼 포퍼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볼테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고 앞날의 진화를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칭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허영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철 감사원장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직원 여러분, 경위분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6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대식 권향엽 김남준 김성희 김태규 나경원 박정하 박홍배 배준영 송언석
유상범 윤용근 이광재 이연희 이인선 이종욱 정준호 정태호 조배숙 조인철
허영

○청가 위원(1인)

김남국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이운국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임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성기홍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감사원

원장 김호철

기획조정실장 이윤재

국무조정실

실장 임기근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교육부

장관 최교진

정책기획관 김홍순

외교부

장관 조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정책기획관 이지성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정책기획관 이준호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정책기획관 김권영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기획조정관 이형석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주
법제처
처장 조원철
기획조정관 안상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차장 김용무
기획조정관 김인환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차장 김일동
기획조정관 김경호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영철
소방청
청장 최용철
기획조정관 김재홍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문선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기획조정관 조영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사무처장 양청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사무처장 최수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사무처장 박진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차장 기우중

기획총괄심의관 강지웅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기획국장 김인수